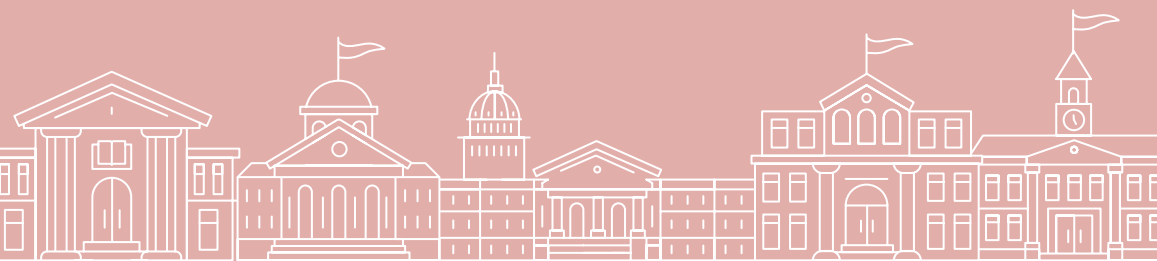


미국 석박사과정
장학금 받고
1년 만에 합격하기

지금 알려줄게요 미국대학원

이민아 지음



저자의 말

작년 겨울, 마지막 지원서를 제출한 뒤 홈페이지에 「박사과정 지원을 준비하며」라는 글을 썼습니다. 감사하게도 짧은 기간 동안 이 글을 읽은 많은 분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의 이메일에 답장하고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느끼게 된, 유학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누그러뜨리고 싶었습니다. 유학은 이미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고 특출하게 똑똑한 사람만이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유학 준비를 망설입니다. 그러나 저 또한 처음부터 확고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초까지만 해도 유학에 대해 아는 것이 전무했고, 의지도 약하고, 목표도 불투명했습니다. 유학을 결심하고 준비하면서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방황했습니다.

장래 희망도, 전공에 대해서도, 대학 생활에 대해서도 무엇 하나 뚜렷하지 못했던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가게 된 것을 말씀드리는 건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사례를 통해 아직 스스로 확신이 없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도 얼마든지 지금부터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학생, 그중에서도 제 관점에서 쓰였습니다. 아는 후배에게 이야기하듯, 따뜻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정보들만 가득한 글을 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반적인 유학 서적과 같이 교육자 입장에서 쓴 권위주의적인 딱딱한 글이 아닌, 유학에 관심이 있는 어느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쉽고 편한 글을 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대학원 지원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용기내서 도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훌륭한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유학에 성공한 선배님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때문에 제가 과연 유학에 대한 책을 쓸 자격이 되는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했지만 제가 얻은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이런 부족한 제 모습마저도 누군가에게는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족했기에 겪게 된 수많은 시행착오와, 그로부터 얻은 여러 가지 깨달음들을 공유하는 것이 앞으로 유학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이 책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책의 집필 및 제작과정과 유학 준비과정을 도와주신 분들에게 이 책의 가장 마지막 장을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인생이란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걸세.

어떻게 사는가도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고.

- 기시미 이치로 & 고가 후미타케, 『미움받을 용기』

차례

저자의 말 _4

프롤로그 4학년 2학기에 비로소 유학을 결심하다 _14

PART I 미국 박사과정 진학, 과연 남의 이야기일까?

학부 졸업 후 바로 박사과정을 지원하자 _19

석사과정 vs. 박사과정 | 미국 대학원 박사과정 = 석박사 통합과정 | 왜 미국인가? | 연구에 뜻이 있다면 학부 졸업 후 바로 미국 대학원 박사과정에 도전하자

아이비리그, MIT, 스탠퍼드, 버클리...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_25

아이비리그가 궁금하다 | 아이비리그란 무조건 좋은 학교일까? |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라

“내가 연구를 잘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그대에게 _34

아직 몰라도 괜찮다 | 나는 연구 혹은 유학에 적합한 사람인가? |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것이다

유학 정보, 어떻게 구할까? _39

정보를 얻는 흔한 방법 | 지인 정보와 검색 정보의 한계 | 유학 준비에서도 아는 것이 힘이다!

돈 때문에 미국 대학원을 고민하고 있다면? _43

장학금과 펀딩을 적극 활용하자 | 장학금이란? | 장학금 지원 시기 | 펀딩이란? | 펀딩 유무는 언제 결정되는가?

PART II **생각보다 단순한** **지원 과정 파악하기**

미국 대학원 지원 과정_53

대부분의 지원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다 | 지원 결과 발표와 입학 시기 |
영어권 학생들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 미국 대학원의 입학사정 과정

유학에 대한 정교한 청사진을 그려라_58

한정된 지면에 다양한 장점을 드러내야 한다 | 전체 그림을 파악하라

1년 만에 연구·영어·서류 세 마리 토끼를 잡자_64

가고 싶은 학교들의 지원 마감일과 선발 방식을 파악하자 | 준비해야 할 것
들을 파악하자 | 타임라인을 그려라 | 학점과 영어와 연구

PART III **마음먹고 하나하나**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Chapter 1 학교 조사

지원할 학교는 어떻게 알아가야 할까?_77

학교 조사를 시작하는 두 가지 방법 | 학교 조사를 할 때 무엇을 파악해야
하나? | 학교 조사의 중요성

학교 선택의 기준_84

선택의 기준은 다양하다 | 어떤 요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까? | 필요
한 정보를 찾는 방법 | 전문가의 도움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학교 및 교수의 홈페이지를 공략하라_91

학교 홈페이지 뜯어보기 | 교수 홈페이지 뜯어보기

관심 분야의 학술지, 논문, 최근 연구를 파악하라_97

주요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초록을 읽어라 | 키워드를 중심으로 주요 연구를 파악하자 | 교수의 논문 실적을 살펴보자

대학 순위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_101

대학 순위를 맹신하지 말자 | 대학의 평판과 함께 일하고 싶은 교수

지원하는 학교를 10~15개 내외로 제한하라_107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몇 개의 학교에 지원할까? | 지원하는 학교의 수는 시간과 비용을 기준으로 정하라

Chapter 2 연구

논문을 쓰겠다는 목표 의식을 가지고 수업, 프로젝트, 연구에 임하자_115

목표 의식을 장전하라 | 논문을 쓰자

박사과정을 지원할 때 반드시 논문이 필요할까?_121

논문은 '체크리스트의 항목 중 하나'가 아니다 | 학부생이 박사과정에 진학할 때 반드시 논문 실적이나 연구 경험이 있어야 할까? | 학부과정을 마치고 바로 지원하는 학생들 중 논문이 있는 학생이 많을까? | 논문을 완성하는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 | 그래서 도대체 논문이 있으면 어떤 점에서 좋은가?

논문이 거절되더라도 말로 잘 풀어내면 승산이 있다_128

논문이 아니어도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어필할 수 있다 | 논문이 거절되더라도 괜찮다

무엇을 하고 싶든지 잘 모르겠다면, 학부 연구생_133

왜 학부 연구생인가? | 학부 연구생의 장점 | 학부 연구생의 단점 |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 교수와 면담할 때 이것만은 꼭 지키자 | 해보고 결정하라

국제학회는 유학 생활을 가능해볼 수 있는 기회다_142

국제학회를 통해 얻게 된 도움은 결정적이었다 | 국제학회에 도전하라 | 국제학회 등록하기 | 국제학회 참석하기 | 국제학회 즐기기

Chapter 3 영어

영어 성적이 비공식적으로 지원자를 거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_151

영어 성적이 당락을 결정짓는 절대적 요인은 아니다 | 영어 성적이 지원자를 거르는 기준이 될 때

TOEFL과 GRE 성적은 늦어도 지원 3개월 전까지 확보하라_159

최대한 빠르게 | 공부하는 어떻게? | 학원을 다녀야 할까? | GRE의 기초가 되어주는 TOEFL

GRE는 TOEFL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단어 3,000개만 더 외우면 된다_165

GRE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언어 영역이다 | 인간의 기억력을 시험에 들게 하는 단어 | 나의 눈을 의심케 하는 독해

Chapter 4 이력서

Step1 파악하기 한두 장의 문서로 나를 세일즈하라_173

이력서에 무엇을 얼마나 쓸까? | 입학사정관들은 이력서에서 무엇을 볼까? | 좋은 이력서를 쓰려면 평소에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Step2 작성하기 한눈에 들어오는 이력서 쓰기_178

이력서는 어떻게 구성하나? | 기본 자료 준비하기 | 작성하기

Step3 완성하기 프로페셔널하게 만들어라_191

일관성을 부여하라 | 스타일을 덧입혀라 | 센스를 발휘하라

Chapter 5 학업계획서

Step1 파악하기 학업계획서가 판도를 뒤집는다_201

학업계획서가 뭐지? | 학업계획서 ≠ 자기소개서 | 학업계획서는 기회다

Step2 준비하기 학업계획서를 작성하는 힘은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에서 나온다_207

“나쁘지 않다”는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뜻이다 | 나는 왜 박사과정을 밟고
자 하는가? | 진지하게 되묻고 솔직하게 대답하자

Step3 작성하기 학업계획서, 이렇게 써라_211

주제 선정 | 개요 잡기 | 작성하기

Step4 발전시키기 현재 학업계획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_218

학업계획서 작성 초기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자 | 공부를 하며 작성하자
| 고민의 시간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믿자 | 합격생의 학업계획서와 교수
의 연구계획서를 참고하자

Step5 완성하기 다양한 사람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여러 번 수정하라_223

100번 이상의 퇴고 | 피드백이 필요한 이유 | 어떤 사람에게 피드백을 요청
할까?

Chapter 6 추천서

추천서는 가장 중요한 서류다_233

추천서는 지원자의 서류 중 가장 먼저 읽힌다 | 추천서가 중요한 네 가지 이
유 | 좋은 추천서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보다 합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추천인은 최대한 신중하게 선정하고, 빠르게 부탁해야 한다_238

최고의 추천인을 찾아라 | 추천서의 퀄리티는 나와 추천인 간의 관계의 깊이
와 정비례한다 | 추천인을 정했다면 신속하게 부탁하라

연구, 학업, 성격 등 다양한 장점을 강조하는 추천서를 받아라_243

세 명의 추천인이 각각 다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 나의 추천서 구성 전략 | 연구, 학업, 성격의 특징점을 부각하라

좋은 추천서를 받고 싶다면 철저하게 준비하고 부탁하라!_250

추천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요청하라 | 연락을 드릴 때 상대방과 나의 관계를 프레이밍하라 | 찾아보기 | 나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라 | 주기적으로 리마인드시켜 드리기

추천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면?_257

추천인이 추천서의 초안을 요구할 때 | 추천서 작성 방법 | 제3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보라

Chapter 7 장학금

장학금은 학생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합격 확률을 높여주는 지표다_267

장학금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 장학금의 장점

국내 장학재단의 선발 개요_272

대표적인 국내 장학재단의 선발 개요 | 장학금의 종류와 특징

장학금 지원을 박사과정 지원의 예행연습이라 생각하라_278

장학금 지원과 박사과정 지원은 비슷하다 | 완벽하지 않더라도 계속 도전하라 | 장학금 지원으로 생산성과 능력을 높여라

Chapter 8 콘택트 메일

보내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_285

콘택트 메일이란 무엇인가? | 콘택트 메일을 보내는 대표적인 이유와 장점 | 콘택트 메일을 보내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 | 콘택트 메일은 가성비가 뛰어난 자기 마케팅 수단이다 | 콘택트 메일을 보내는 시기

메일은 반드시 짧게 두괄식으로 작성한다_293

상대방을 배려한 글쓰기가 중요하다 | 콘택트 메일도 편지글이다

Chapter 9 인터뷰

말만 들어도 두려운 인터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_307

인터뷰 요청 메일 | 인터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 지원하는 모든 학교와 인터뷰를 해야 할까? | 인터뷰의 소요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전공에 대한 지식보다 인간성, 성격, 느낌을 볼 수도 있다_314

합격이 어느 정도 결정된 상태에서 하는 인터뷰도 있다 | 질의응답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터뷰도 있다 | 평가가 목적인 인터뷰도 있다

주요 질문에 대답하고, 반대로 질문하는 연습도 하자_318

인터뷰에서 자주 하는 질문 | 인터뷰는 어떻게 준비하고 연습할 수 있을까?
| 교수에게 할 질문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가?

감사의 말_325

부록_333

유학 준비 타임라인 | 나의 이력서 | 나의 학업계획서